



나용호
원광대학교 총장
한국시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사람만이 희망이고, 대학이 국가의 미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학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역할의 실현을 위해서 대학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는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회나 기업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대학이 선진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고등교육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언하도록 한다.

I. 머리말

이제 선택은 끝났다. 필자는 한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나라를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부당한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하여 정당한 국민권력을 수호하였고,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했다. 대학은 국민의 희망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요즘에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학생대로, 수험생 부모는 부모대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교사대로 일종의 천형(天刑)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태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낫설지 않다. 기업들은 대학이 쓸모없는 허깨비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눈높이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각종 조사에서는 우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는 고시준비생과 비(非)고시준비생, 두 부류의 대학생밖에 없다고 한다. 인문계와 이공계에는 학생들이 없어 파리를 날리고 있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다. 교수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위치만 지키려고 몸을 낮추고 있으며, 교육의 책무성은 잊혀진 지 오래되었다.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기 힘들어졌다. 대학은 질 낮은 교육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연구 상품이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쇼핑몰로 전략해 가고 있다. 대학교육의 순수성과 신뢰성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대학 밖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와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대학 안에서는 냉소주의, 책임전가주의, 무사안일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대학사회를 분열과 패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II. 대학의 역할과 방향

대학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미래사

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이런 가치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는 없다. 대학의 미래가 없다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대학이 국가의 미래인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뿐만 아니다. 어느 나라이건, 어느 시대이건 대학은 그 국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새 정부는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사안이며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나라 대학이 견지해야 할 미래가치와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새 천년의 대학(The University at the Millennium)>을 천명한 1998년 ‘글리온 선언(The Glion Declaration)’에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교육은 도덕적 소명이며, 연구는 공공에 대한 믿음이며, 공공서비스는 대학의 의무”라고 했다. 이는 곧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든 좋은 직장과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며, 국가나 사회가 학생들과 사회의 미래를 대학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대학이 나아가 할 방향이 있다.

대학에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을 교육시키는 일은 기업의 이윤창출처럼 당장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철학이나 자연과학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한 이런 가치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동시에 대학은 이제 고객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공부하는 대학문화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와 교육 여건을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대학이나 정부 혼자 해낼 수는 없다. 대학과 정부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같은 목표를 향해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

이 실천될 수 없었던 것뿐이다. 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Ⅲ. 고등교육 강국이 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

지난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비전 415’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강국이 되기 위해 새 정부에 제안하는 4대 핵심 정책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를 담은 것으로 4대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강한 교육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창조적 인재가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학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들은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 각종 세제를 지원하고 재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제 정부는 지원금을 두고 대학을 줄 세우는 정책을 지양하고 대학 스스로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자산을 수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주체의 자율권 보장이다.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지적처럼 정부는 교육 비즈니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정부는 대학교육의 큰 틀만 디자인하고 학생 선발 등 세부적 운영은 과감히 대학에 넘겨야 한다.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는 생산자라면, 어떤 학생들을 어떤 방식

으로 선발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 어떻게 사회에 배출시킬 것인가는 완전히 대학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오리 사육' 식 교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리는 날고, 뛰고, 헤엄도 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존재이다. 교육의 의미는 '평범한 오리'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사자 같은 수월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모든 대학에 획일적이며 타율적인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고민도 다르고 생존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각 대학이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자발성을 자극하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FTA 시대는 세계를 무한경쟁의 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대학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내지 못하면 우리의 교육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대학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훌륭한 석학들을 초빙하는 데 필요한 거주비나 연구비, 연구지원 인력 확보 등 각종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국외로 유출된 국내 유수의 인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는 정책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우리 대학들이 더욱 많은 외국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체제와 교육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대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세계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대학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대량 유출되고, 대학 입학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

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토도 유기적인 신체와 같아서 어느 한 지역만 발달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우리나라의 대학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IV. 맺는말

교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생계를 꾸려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교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두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면 해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학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역할이 실현되기 위해서 대학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는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회나 기업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대학이 선진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내용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원광대학교 병원장, 원광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대한소화관운동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위 및 장의 기능성질환 및 내시경 술기에 관련된 저서 20여 편과 "위장관 운동 장애에 관한 연구", "궤양성 대장염의 병의 원인에 관한 병태 생리 연구" 등 120여 편이 있다.